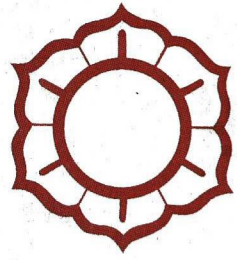


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메  
흠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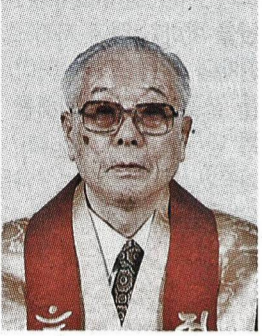
# 총지종보

2003년  
1월 1일  
수요일  
제40호

**이 달의 종조법설**  
진리란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 마음  
을 깨치면 곧 진리를 깨친 것이다.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다시 몇 일째 사물을 알려고 구할  
것인가. 다른 이의 마음을 찾고 알려고 하기 이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알아야 한다.

발행인: 법공 편집인: 황익수 인쇄인: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02)552-1081

## 록정 종령 법어



菩薩有四恩 (보살유사은)  
行而不可盡 (행이 불가진)  
布施仁愛 (보시인애)  
利益等與 (이익등여)

보살은 네 가지의 은혜가 있으니 그  
행함에 다함이 없어야 한다. 첫째는 보  
시요, 둘째는 어진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요, 세 번째는 이롭게 함이요, 네 번째  
는 모든 것을 골고루 주는 것이다.

불제자 여러분, 계미년 한 해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갚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보은(報恩)의 마음을  
가진 자는 응당 은혜 갚는 행동을 실

## 報恩과 稱讚이 충만한 정토사회 구현

전에 읊기는 법입니다. 은혜 갚는 행  
동이란 항상 베푸는 마음으로 남을 이  
롭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비록 생사에 있

나 선군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선군이 끊어지는 것이니,  
이런 까닭에 모든 부처님은 은혜를 알  
고 은혜를 갚는 사람을 칭찬하시었습

니다.  
은혜를 아는 것은 대비(大悲)의 근  
본이며, 선업(善業)을 여는 첫 문이  
며, 구경 불도(佛道)에 이르는 문입니

다. 보은(報恩)을 나의 수행지점으로  
삼아서 은혜 갚는 일에 정진토록 합  
시다.

새해의 밝은 아침을 보은의 마음으  
로 맞이하며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  
명이 불제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  
하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음마니반메흠.

총기32년 (불기2547년) 새해 아침  
불교총지종 종령 록정 합장

## 법공 통리원장 신년사



영겁의 시간 속에서 새해다 목은해  
다 해서 법칙을 떠는 것이 무슨 대수로  
울게 있었습니까만 그래도 새해가 되  
면 새로운 각오를 해 보는 것이 인지  
상정이라 생각합니다.

금년은 지난 어느 해보다도 변화가  
많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정치, 경  
제, 문화 등 사회의 각 방면에서 큰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우리 불자들  
도 사회의 변화와 격동의 시기에 발  
맞추어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자세  
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  
니다.

부처님 앞에서 명이나 빌고 복이나  
비는 그런 불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부처님 앞에서 바라는 것이라고는 오  
직 내가 잘되고 내 가족만이 잘 되

를 바라는 기복적이고 소승적인 불자  
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탐진치에  
몰든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청정한 삶  
을 영위하여 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각  
오를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 참된 불자로 거듭나는 한해가 되기를

화하고 그러한 정화를 바탕으로 사회  
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선도하는 대승적인 참된 불  
자로 거듭나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  
니다.

중종제망의 이 세계는 나 한사람의  
마음가짐으로부터 전개되는 것입니다.

아집과 이기심의 겹질을 벗고 무연대  
자, 동체대비의 보살정신을 구현할 때  
에 비로소 나의 행복과 내 가정의 안  
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을 펴는 승직자들도 부처  
님의 이름으로 나 자신을 정

일로 나날을 보낼 것이 아니라 외도들  
에 몰든 이 나라의 정신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한해  
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천년의 정  
기가 서린 이 땅에 외도와 사도가 판  
을 치는 것도 다 우리 불자들의 책임  
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  
다. 올해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바르게 따르는 참된 불자로 거듭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하시고 청정한 삶을 영위하  
도록 부처님전에 다시 한번 기원합니  
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  
음마니반메흠, 음마니반메흠, 음마  
니반메흠!

계미년 새해아침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법공 합장

# 양부 만다라 본존과 함께 환희심 절로

## 총지종 만다라 봉안 법회 성황리 봉행

한국불교의 밀교정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생활의 불교화를 실현하고 있  
는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이법공종사)  
은 창종 3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하  
나로 '금강계·태장계 만다라봉안 대법  
회'를 지난 12월 12일 오후 2시 총지종  
본산 총지사(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에서 약 1천명의 동참으로 성황리에 봉  
행하였다.

이날 봉안법회는 총지종의 전국 스승  
과 교도, 한국불교총연합 임원 및 정부,  
정계 등 약 1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  
후 2시 개회와 더불어 이어진 만다라계  
막을 시작으로 1시간 30분동안 진행되  
었다.

진언형식의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또부  
처님께 여섯가지 공양물은 올리는 육법  
공양은 장중하면서 엄숙하게 만보사 보  
살 육법공양탑에서 진행하여 자리를 빛  
내었다.

총지종 종령 록정대종사는 법공 통리  
원장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오늘의 만  
다라 봉안은 일천한 종단사에도 불구하  
고 정통밀교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 결  
실"이라고 평하고 "우리나라 불교 역사  
상 초유의 불사인 금번의 만다라 봉안  
으로 정통밀교의 교리가 널리 알려지  
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였다.

이날 참석한 주요인사는 종단협 사무  
총장 이6홍파(관음종총무원장), 전남정  
(총화종총무원장), 도후(불교방송 이사  
장)스님 등 불교계 종단대표와 김기재  
민주당 대통령선거 불교특별위원장, 모  
철민 문화관광부총무관을 비롯하여 불  
교계 언론사로서의 김규철(불교방송사  
장), 이수덕(불교텔레비전사장), 김광삼



(현대불교신문사장)이 참석하였다.  
종단협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는 홍파  
스님은 "한국불교 초유의 금강 태장 양  
계 만다라봉안을 맞아 지극히 위중한

장은 불교가 가장 융창하였던 고려시대  
이후 단절된 밀교의 복원과 함께 앞으  
로도 정통밀교를 표방하고 있는 불교총  
지종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는 축사를 하였다.

이번에 봉행한 만다라는 밀교경전인  
대일경과 금강경에 근거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총지종단은 5년간 실험을 기  
울어 공개된 불화다. 국내에서는 불화작  
가와 재료 등 여건상 제작이 어려워 총  
지종의 연구기관 법장원의 연구진 지도  
하에 밀교수행의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티벳 현지의 승려(SHAILA LAMA,  
KUNSA LAMA 등 12명 티벳승 참여)  
들이 직접 제작하여 조성한 불화로써  
성보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봉안된 만다라는 각각 가로  
세로 2.6미터의 정사각형이며 태장계  
에는 409존, 금강계에는 1461존의 불  
보살님과 명왕, 천왕 등이 망라되어  
있다.

그간 만다라는 거의 복사본이나 인쇄  
된 형태로 모셔졌으나 이번에 국내최초  
로 직접 제작된 금강계와 태장계를 봉  
안하였다. 양부만다라에는 중생구제와  
죽신성불의 원리가 그대로 새겨있기 때  
문에 정통밀교종단으로서의 불교총지종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 새해 대 서원불공

계미년 부처님의 가지호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전 종도와 함께 새해 대서원불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여하여 부처님의 가지력 두루하길  
바랍니다.

- 일시: 총기 32년, 1월 6일~12일
- 장소: 전국 각 서원당

### - 서원사항 -

- 총지종 교세 발전
- 부국강병 국대민안
- 초국 평화통일
- 일체 교도 가정 제재난
- 일체 교도 가정 소구여의
- 영일제민경에 일체교도가정
- 재난발생 산업 발전
- 각 사원 교화 발전

# 교도가정에 진언공덕 두루 하시길

희망찬 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나라와 이웃의 평안함과 화합의 공덕 일구어 교도가정마다 부처님의 가지공덕이 충만하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원정대성사님이 이 땅에 정통밀교의 원대한 뜻을 세운 종지를 바로 받들어 종단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미년 새해 아침에

불교총지종 종령 록정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법공 합장



# 사설

## 오는 해 맞이하고, 가는 해 회향하며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는 말이 있듯이 임오년 맞은지 엇그제 같은데 계미의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 조금만 열심히 했으면 조금만 더욱 노력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세월은 가지고 있다. 국가적으로나 종단적으로 임오년은 어느해 보다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월드컵 국민 대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16대 대통령 선거도 역대 여는 선거와는 다르게 금권과 관권이 줄어든 국민 화합의 선거였다.

종단적으로는 창종 30주년이 되는 해였다. 청년종단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책임을 지는 장년의 종단으로 발돋움 했다.

종단 내적으로는 13대 법공 총리원장 선출로 종단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또한 총지종의 종단 체질개선을 위해 교화발전연구위원회, 불사법요위원회, 종헌준법연구위원회, 흥법포교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제양성위원회, 재정자립위원회, 총괄기획위원회등 9개 분과위를 가동하여 종단의 주인이 집행부만의 종단이 아닌 모든 종도들이 참여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이로써 종단 전체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종단 외적으로는 만다라 봉안 대작불사를 위한 회향하여 종단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한층 높였으며 호남불교의 전진기지로서 광주 법황사와 전주 흥국사 사원신축불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는 등 외연확대에 노력하는 임오년이였다.

현대사회가 다종교 사회이기에 오늘도 수많은 종교가 만들어지고 또한 사라지고 한다. 종단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한때 대중들에게 한순간 반짝하고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종교로 전락한 모습은 주위에서 많이 보았다. 창종 30년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이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현대사회의 종단의 모습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계미년 양의 해가 되었다. 임오년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총지종단이 한국불교에서 우뚝 자리매김을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관 확립과 정체성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짧지 않은 종단 역사에 대한 확립은 한국불교속에서 재가불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특히 정통불교를 표방하는 총지종은 무엇을 무기로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다. 1년 365일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 계획적이고 알차게 시간을 소중히 쓰는 사람에게는 후회로 남지 않는 시간이 될 것이며 무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되어 순간순간 시간을 대처하는 사람은 분명히 후회의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계미년 년말에는 후회하지 않는 한해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보자.

## 서울경인교구 합창단 송년잔치

서울경인교구 합창단(담당 인성정 사. 단장 원각화보살)은 지난 12월 18일 총지사에서 송년모임을 하였다.

이날 원각화 단장은 "올해 행사가 많아 바쁜 한해가 되었으며 바쁜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내어준 모든 단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하며 "다가오는 '계미년에는 모든 사원에서 교도들이 모두 참여하는 단원배

가 운동을 벌이자"고 하였다.

또한 서울 경인 교구 합창단은 계미년에는 독자발표회와 전국 합창단 수련회 및 발표회, 육법공양 행사를 준비하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 경인교구합창단은 반주에 조경숙 보살, 지휘자 박모정 보살이 매주 수요일에 총지사에서 연습하고 있다.

## 제104회 원의회에서 신규승교육 문제 다루

지난 12월16일 총리원에서 각 부장 및 교구장이 참석한 가운데 104회 원의회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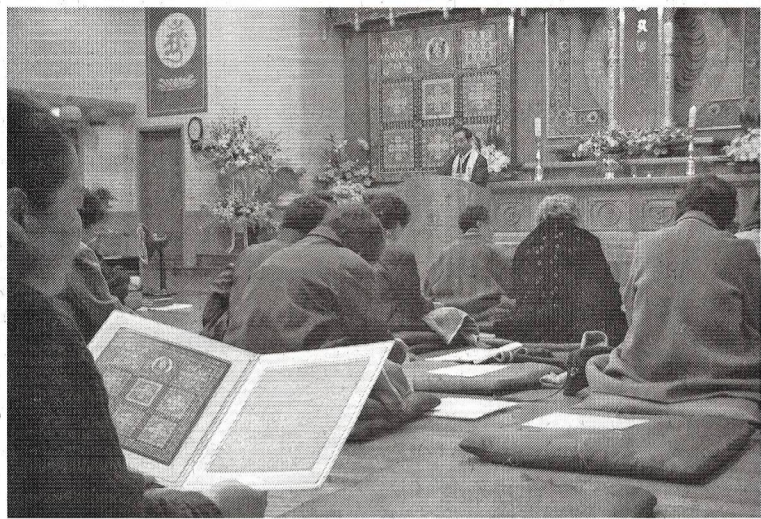
법공 총리원장과 정정심 부산경 남교구장, 우승 대구 경북교구장, 법수원 총정전리교구장 대원 사회 부장, 법등 교정부장, 인선 재단사 무국장이 참석하여 신규승교육과 연장근무, 법원회공제금 및 백

지수당지급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법공 총리원장은 "신규승의 선발과 교육은 종단의 앞날에 중요한 문제이다"며 "각 교구에서 올린 신규승에 대한 선발기준강화와 심도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전국사원 원정대성사 큰 뜻 길러

## 총지종 창종 정신 되살려 용맹정진해야



12월24일 제30주년(총기31년) 창종 30주년 창교절을 맞이하여 전국사원에서는 일 제30주년 창교절을 맞이하여 록

정 종령은 "원정대성사께서는 사바세계에 새로운 빛을 밝히며 불국정토 건설과 호국안민, 중생제도의 대비원을 세우시고, 다라니종의 창종을 만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다라니 수법의 실천과 정법체득으로 비밀불교의 정수를 사바세계에 현현(顯現)케 하였으니, 오늘이 창교절은 더욱 뜻깊고 성스러운 날이며 우리 모두가 창종 당시의 원력과 굳건한 신심으로 재무장하고, 제2의 창종을 위한 용맹정진과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달라"창교절 유시문을 발표하였다.

## 창교절 종령 유시문

오늘은 창종 원정 대성사께서 한국불교의 창종과 중생제도의 대비원(大悲願)으로 총지종을 세우신 지 어언30년의 해가 되는, 정말로 뜻깊은 창교절입니다.

원정대성사께서는 사바세계에 새로운 빛을 밝히며 불국정토 건설과 호국안민, 중생제도의 대비원을 세우시고, 다라니종의 창종을 만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다라니 수법의 실천과 정법체득으로 비밀불교의 정수를 사바세계에 현현(顯現)케 하였으니, 오늘이 창교절은 더욱 뜻깊고 성스러운 날입니다.

돌이켜 생각컨대, 창종 원정대성사께서는 당시 만년(萬難)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창종과 함께 종단

안 연원해왔고, 7년간의 연구와 검토작업을 거쳐 오늘의 회향에 이르러 되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그릇을 키우는 시험과정이었으며 수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원력과 용맹정진력으로써 이제 양부만다라를 기쁜 마음으로 봉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부만다라의 봉안을 통해 우리 진언행자는 더욱더 바른 자세로 즉신성불과 중생교화의 대사업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법회를 통해 수많은 불보살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불보살을 모신 밀교도량답게 우리의 마음자리도 자비와 지혜가 무량한 도량으로 기우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다라봉안이 단지 회향을 모신 것에 머무르면, 우리는 여래의 지혜를 보지도 못할 것이며, 전식득지(轉識得智)의 진여를 이룰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가르침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 가슴가득 불보살을 담고

## 만다라 세계처럼 서원 성취

을 반석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창종님의 은화출세의 일대기연과 불요불굴의 확고한 의지, 중생제도는 일념의 무진서원 대정진이 없었더라면 오늘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를 생각할 때, 오늘의 창교절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사랑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창종 30주년이 되는 금년은 그 어느때 보다도 종단 안팎으로 대소 불사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자석사 신축 현공불사를 시작으로, 창종이래 교화방편의 일대 변화라 할 수 있는 갖가지 조성과 새로운 본존과 불단의 장엄 등 도량장엄불사가 치루어졌습니다.

특히 7년간의 연구와 지도를 통해 조성하여 봉안하였던 양부만다라는 창종30주년 불사로서 그 백미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원정 대성사께서 유훈으로 남기신 '시대에 따라 교화방편이 달라야 한다'는 제생의세(濟生醫世)의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받들어 일궈낸 불사라고 생각합니다. 창종30주년에 걸맞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스승님과 교도보살님들의 변함없는 종단사랑과 깊은 신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만다라 대작불사는 종단의 숙원불사로서 오랫동안

먼저 내가 큰 도량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만다라 봉안과 함께 깊은 신심과 환희심을 내어야 합니다. 불보살의 만다라와 입아어입(入我我入)의 일체를 이루는, 내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가슴 가득 불보살이 내게로 들어와 금강신(金剛身)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창종30주년의 창교절을 맞이하여 스승님과 교도보살님들과 다함께 다시한번 그 뜻을 기리는 바이며, 창종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창종 당시의 원력과 굳건한 신심으로 재무장하고, 제2의 창종을 위한 용맹정진과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교절 유시문에 가겠습니다.

모든 일이 만다라의 세계처럼 원만하고 무애한 성취를 이루시기를 서원합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의 변조광명이 충만하여 자비지혜 구축하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훎

총기31년 12월 24일

불교 총지종 종령 록 정 합장

## 총회의장 신년사

## 새해 아침에



의강 삼밀사 주교

전 국민의 하나된 목소리는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는 천재와 인재가 겹친 태풍과 대홍수의 피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 아직까지도 도처에서 남은 천막과 콘테이너 박스 안에서 하루를 어렵게 지탱하고 있는 슬픈 현실을 뒤로 하고 다사다난했던 임오년은 낙조와 더불어 서서히 저물고 계미년의 힘찬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올랐습니다.

값진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시대를 부처님 같이 살다가신 어느 선사는 법회에 동참한 대중을 향하여 '불기자심(不欺自心)하라며 주장자를 치면서 크게 호통치셨다'고 합니다. 남을 속이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 가운데 모셔진 자성부처를 속이지 말며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의 현재의 마음자리가 어디 있는가를 살필 줄 아는 지혜를 가지도록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남을 향하여는 "마음을 비우라"고 거침없이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의 어둠과 고집스런 아상에 사로잡힌 편견과 자기주장을 굽힐 줄 모릅니다. 스스로 종교인이니 또는 승직자를 빌려주어 부처와 보살을 팔면서까지 불법, 승 삼보를 훼손하는 주변을 보며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빈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욕과 칠정에서 벗어나지

## 정직한 마음으로

## 은혜에 감사하는 계미년

우리 모두는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희망찬 계미년의 새로운 한해를 조심스럽게 살게하고 맞이하면서 먼저 종령님의 법체가 더욱 건강하시고 전승단과 교도대중이 화합단결하여 창종 원정대성사님의 창종정신과 정통불교의 위상을 그 어느해보다 공고히 확립하여 종단교계 발전과 더불어 전국 교도대중의 간절히 소망이 완만히 성취되고 나라와 가정에 삼재팔난이 없는 한해가 되시길 지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조용히 반성하면서 우리 모두는 각자 주어진 시간과 책무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또한 최선을 다하였던가를 다시한번 되새기면서 새롭게 맞는 이 값진 한해에는 부처님의 은혜와 스승의 은혜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와 대중의 깊은 은혜에 나 스스로가 얼마나 감사하며 보답하였던가를 정직하게 성찰하면서 실천하는 보람되고

못하는 중생이라 마음 비우기가 쉽겠는가. 돌바위에 앉아 눈만 감고 있다고 부처를 이룰 것인가? 라고 어느선사가 말씀하셨듯이... 깊이 새겨볼 화두입니다. 부처를 이루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성실하고 정직한 인간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으며 우리는 나라와 사회 그리고 가정의 행복과 소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전승단과 교도가 부처님께 간절히 발원하면서 용맹정진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은혜로움에 감사하고 정직하고 진솔한 참회정진이 함께 할 때 우리의 서원은 성취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각 사원의 교세가 더욱 발전하고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함은 물론 총지종 교도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두루 충만 하셔서 하시는 일마다 원만성취 되시기를 지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도합시다

계미년 새해아침에

## 개천사 신정회장 대원화 보살 선출

개천사 신정회가 12월1일 신정회장을 선출하였다. 전임 3년의 임기를 채운 김계숙 보살은 인사말에서 "개천사 신정회를 보다 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러지 못해 항시 아쉬움이 남는다"며 "신임 회장과 함께 신정회의 발전과 개천사 교화 발전에 교도들의 일심된 화합모습을 보여주시라"고 하였다.

신임 개천사 신정회장은 "전임회장의 뜻과 노력을 이어받아 성심껏 노력하겠으며 많은 교도들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개천사 신정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개천사 신정회는 회장 대원화 보살, 부회장 손식 보살, 총무 김광자, 광노선 보살, 임원 김숙희, 김미정, 박연자, 서옥희, 전은숙보살이 선출되었다.

# 만다라를 친견합시다!

밀교의 만다라는 사방삼세제불께서 한 자리에 계시는 부처님의 세계요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또한 중생구경의 경지요 즉신성불의 가르침인 양부만다라(태장계, 금강계)를 모든 불자들은 친견합시다.

## 만다라 친견공덕

"만다라를 친견하면 다생겁동안 지은바 모든 죄업이 소멸하고 남음이 없느니라" (대일경)고 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친견하고 예경합시다.

## 불교 총지종 총 지 사

금강계 만다라

태장계 만다라

# 총지종 만다라 봉안은 이렇게입니다

## 1. 만다라 봉안의 의미

본 종단에서 봉행했던 양부만다라봉사는 종단 최대의 일대행사로서 스승과 교도 보살이 일체가 되어 대원력으로써 이루어진 불사입니다.

양부만다라는 태장계만다라와 금강계만다라를 말하는 것으로, 태장계만다라는 밀교의 양대경전 중 하나인 『대일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만다라이고, 금강계만다라는 『금강정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만다라입니다. 이들 양부 만다라는 밀교의 교리와 수행 체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밀교의 모든 작법(作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밀교의 양부 만다라를 우리 종단에서 봉안하게 된 것은 한국불교계에 일대 불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양부만다라가 종교적 대상으로 모셔졌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

습니다. 더구나 우리 종단이 밀교종단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종단의 교리와 사상적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2. 종단에서 만다라를 봉안한 이유 :

『만다라』는 종단에서 이미 교의적으로 채택하여 왔던 것으로, 교상과 사상의 체계적 정립을 위하여 금번에 그림으로 형상화된 양부만다라를 봉안한 것입니다.

밀교의 가장 큰 특징은 상징성과 신비성에 있습니다. 상징성과 신비성이란 밀교의 교리를 함축적인 의미의 문자나 모양, 그림 등으로 나타내어 오묘한 종교성을 자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징성과 신비성은 밀교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만다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밀교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총지종이 밀교의 상징성과 신비성을 대표하는 양부만다라를 봉안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다라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으며, 이미 종조님께서는 종단의 교리로써 만다라를 간접적으로 채택하셨습니다. 이는 곧 만다라가 이미 우리 총지종에 있어 왔으며, 우리의 아주 밀접해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이 만다라와 무관하지 않고 이미 종단에서 만다라가 폭넓게 채택되고 있음을 종단의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에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다라 봉안은 종단의 '소의경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에서는 종조 원정 대승사께서 공표하셨듯이 밀교의 양부(兩部) 경전인 대일경과 금강정경, 대승장엄보왕경, 대이취유바라밀다경은 소의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일경과 금강정경을 소의경전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곧 두 경전의 모든 가르침을 수용하고 있음을 뜻하

고 있습니다. 즉 경전의 모든 교의(敎義)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만다라의 교의적 수용도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종단이 만다라를 봉안한 것은 바로 소의경전인 대일경과 금강정경에 이론적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고, 종단과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소의경전이 만다라의 봉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만다라를 종조님께서 직접 설하셨습니다.

종조님은 밀교의 기초적 교리로써 뿐만 아니라 종단의 중심교리로써 직접 설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만다라의 봉안은 종조님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종조님설법에서 종조 원정 대승사는 만다라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하고 계십니다. 제1장 '교상과 사상편'과 제3장 '집언편' 등 무려 13쪽에 걸쳐 설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종조님께서 만다라에 대한 교의를 수차례 법설(法說)하셨다는 점에서 만다라가 우리와 무관하

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 본존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바로 만다라를 모시고 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조님께서는 "우리가 본존으로 삼고 있는 육자진언주는 만다라를 총섭한 것으로, 마니는 보주로서 남성을 뜻하는 금강계요, 반에는 연화로서 여성을 뜻하는 태장계이며, 흠은 최파(?破)를 뜻하는 일체금강보살을 가리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육자대명왕진언은 곧 우주로서 바로 만다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육자진언을 태장계와 금강계의 양부만다라에 배대하고 있음은 바로 우리 종단의 본존이 또다른 형태의 양부만다라의 봉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다라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종단의 본존과 같이 '문자'로 된 본존을 넓은 의미로서 '문자 만다라' 또는 '종자만다라'라고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종단의 본존은 바로 종자만다라의 봉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만다라는 우리 종단의 중심교의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종단에서 만다라는 종단의 중심교의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통밀교 불교총지종』의 교리편에서 '우주의 본질을 체(體)·상(相용)·용(用)으로 설명하면서 만다라를 사만(四曼)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비로자나불의 성질, 모습, 활동을 네가지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만다라, 삼매아만다라, 법만다라, 갈미만다라입니다. 이 가운데 대만다라는 금번 종단에서 봉안한 태장계 금강계의 양부만다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로 이 교의는 종단의 만다라 봉안을 교리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만다라의 교리를 우리 종단의 교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바로 만다라가 우리 종단과 무관하지 않음을 뿐만 아니라,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만다라 봉안의 당위성이 바로 사중 만다라의 교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면에 계속)

# 각 교구장 신년사

**희**망찬 새해 계미년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종단대내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종단적으로는 사원헌공불사, 본존봉안과 양부만다라봉안대법회가 열렸고, 국가적으로는 월드컵개최와 지방선거,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미군장갑차의 여중생 사망사건 등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참으로 숨가쁘고 가슴 졸이며 보냈던 한 해였습니다.



서울 경인교구장 해정 정사

## 원망심 버리는 한 해가 되길

한 해를 보내고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년 계미년에는 양의 해인만큼 여유롭고 부드럽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상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좀더 부드럽게 대하면 합니다. 부드럽고 순한 마음에서 진심과 원망심은 자연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수행으로써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처럼 순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닦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심과 원망심은 억지로 없애려 하면 없어지지

않고 더욱 수구치기만 합니다. 반대로 환희심을 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일으키면 자연히 원망심과 진심은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일체중생 보기를 그 자식과 같이 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고통과 번뇌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보살은 악한 마음으로 못중생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마땅히 화내거나 원한을 품는 일이 없고 오직 겸양과 부드러움이 있으며, 일체중생에 자비한 마음을 일으켜서 항상 즐겁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나혼자만의 성불에 있지 않습니다. 자타 모두가 성불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양처럼 순한 사람이 되기를 권해봅니다. 성도(成道)하십시오. 음미반메홍.

**2**003년 계미년 새해아침의 찬란한 태양이 사바세계에 밝은 빛을 발하였습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승단과 교도보살님의 가정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새해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종단이 그 동안 닦아온 기쁨을 발판으로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종단은 그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대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일신유일신(日新又日新)의 마음가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에는 발전의 재도약을 위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



부산 경남교구장 정정심전수

## 개혁과 변화 큰 물결에 조응

부응하기 위하여는 창조적 개혁과 변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새로운 총지종을 만든다는 의미의 '제2의 창조'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에는 교구와 사원의 발전을 더욱 배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교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종단의 생명력을 증장시키고 중생제도에 전념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구장으로서 종단 발전과 중생교화에 더욱 매진할 것을 스스로 다짐해봅니다. 우리 모두 부끄러움이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올 한 해에도 소원성취하시고 불법(佛法) 얻으시기를 서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아 전국의 스승과 교도 여러분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월드컵성공개최로 나라의 위상을 드높였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었습니다. 종단은 만다라 대작불사를 위한 회향하였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어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늘 우리에게 도전과 각오를 새롭게 해줍니다. 그러나 중생의 어리석음은 탐진치의 분별심으로 초발심의 아름다운 마음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첫 출발이라고 마음만 들떠서 원대하고 높은 서원을 세우다보면 그저 계획을 짜는데 만족해야 합니다. 높은 곳만 쳐다보지 말고 자기자리에서 자신의 삶



대구 경북교구장 우승정사

## 초발심 마음으로 시작

에 만족하고 욕심없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서원을 세워 보십시오. 낮은 땅에 사는 뱀은 허물을 벗으면서 오허려 성숙해 갑니다. 우리도 현재의 위치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살펴보는 '조고각하(照顧脚下)'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또 수행과 전법에 발심을 해야 합니다.

다. '초발심(初發心)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발심은 청정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초발심이 보리(깨달음)'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근기가 약한 범부 중생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이 나약해져 초발심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리를 구하려는 마음 자체도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 불자들은 초발심을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해가다가 방일하거나 나태해질 때면 대 용맹심을 발하여 참나를 찾고 늘 처음 가졌던 마음, 즉 초발심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 마음을 바로 새해 첫날에 세우길 바라는 겁니다. 새해에는 스승과 교도 모두가 세웠던 초심(初心)이 항상 하여 모든 일들이 완만 성취되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뜨는 해는 변함이 없으니 이것이 진리 아닌가? 그러나 중생들은 변하지 않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원각경에 "고기는 물을 보지 못하고 사람은 바람을 보지 못하고 蠶(어리석음)하면 성품을 보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똑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사물을 보아도 모든 것을 업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지, 지혜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같은 길을 가는데 밝은 대낮에 가면 두려움 없이 잘 가는데 어두운 밤에 가면 더듬거리고 무서움을 느끼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바로 無明이란 업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분별심이 진리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하며 탐심 진심 치심의 업장이 眞如의



충청 전라교구장 범수원 전수

## 실상을 찾는 한 해

마음을 가리기에 중생입니다. 계미년에는 우리의 입장을 소멸하는데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불공을 단순히 新福에만 한정지우지 말고 마음공부를 통한 산란한 마음을 고요히 하여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총지종에서는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로 불보살의 세계인 만다라를·전종도들의 성원으로 원만한 봉안하였습니다. 보살의 세계는 광명의 세계, 성취의 세계인 바로 불국정토입니다. 같은 길이라도 밤길이 두렵고 가기가 힘든 것은 물리적으로 단순히 어둡기 때문이 아니라 중생의 무명에 의한 분별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약하면 모든 사물에 좋지 않은 모습만 우리에게 다가오고 마음이 선하면 만사가 순조롭고 환희하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무서움 마음이 좋은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만다라의 광명이라 무명으로부터 해탈하여 계미년 한해는 양털같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후회 없는 삶이되기를 청정법신비로자나 부처님께 서원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꽃같은 세상을 위해 서울·경인교구는 함께 합니다.

**벽 룡 사**  
주교 : 전수. 환수원  
☎ (02)889-0211

**시 법 사**  
주교 : 정사. 지 성 전수. 승호제  
☎ (032)522-7684

**밀 인 사**  
주교 : 정사. 원 승 전수. 인법계  
☎ (02)762-1412

**정 심 사**  
주교 : 전수. 진일심  
☎ (02)433-0374

**관 성 사**  
주교 : 정사. 해 정 전수. 정법계  
☎ (02)736-0950

**법 천 사**  
주교 : 정사. 시 정 전수. 원만원  
☎ (031)751-8685

**실 지 사**  
주교 : 전수. 선도원  
☎ (02)983-1492

**지 인 사**  
주교 : 전수. 연등원  
☎ (032)528-2742

**총 지 사**  
주교 : 정사. 법 등 전수. 인덕심  
☎ (02)568-0802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 서울·경기교구 일동

그림속의 불교이야기

주객으로 얼굴을 얻어맞은 문수보살

중국 오대산 중턱에 있는 외판 암자인 금강굴에서 한 스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 스님은 어려서 출가하여 무착(無著)이라는 법명을 받고 계율과 교학을 공부하였는데 문수보살의 영지인 오대산을 참배하고 문수보살을 직접 만나 뵈려고 기도하는 중이었다.

하루는 양식이 떨어져 산 아래 마을에서 탁발을 하고 오는 길에 소를 끌고 가는 노인을 만났다. 노인의 모습이 범상치 않음을 느낀 무착스님은 자기도 모르게 노인의 뒤를 따라갔다. 한참 따라가다 보니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웅장한 절 한 채가 눈앞에 나타났다. 노인이 문앞에 서서 "균제야" 하고 부르니 한 동자가 뛰어나와 소고삐를 잡고서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이 무착스님에게 물었다.



"자네는 무엇 하러 오대산에 왔는가?"  
"저는 문수보살을 친견하여 그 가피를 얻고자 해서 찾아왔습니다."  
"자네가 과연 문수보살을 만나볼 수 있을까? 자네가 살던 절에는 대중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마음의 분별심과 원망심은 眞如을 보지 못하고

"삼백여명의 대중이 경전도 읽고 계율을 익히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떠한지요?"  
"전삼삼(傳三三) 후삼삼(後三三)이요. 용과 뱀이 뒤섞여 있고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산다네."  
무착은 노인의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다 어느 새 날이 어두워져 무착스님은 노인에게 하룻밤 쉬어가게 해줄 것을 청하였다.  
"애착이 남아있는 사람은 이곳에서 머무를 수가 없다네."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동자를 불러 배웅하게 한 뒤에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미 어둑어둑해진 길가로 나와서 무착은 동자에게 물었다.  
"아까 노인에게 이곳에 사는 대중의 수효를 물었더니 전삼삼 후삼삼이라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그러자 동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불렀다.  
"무착아"  
그 소리에 놀라 무착은 영겁결에 대답하였다.  
"네"  
"그 수효가 얼마나 되는가?"  
동자가 다그쳐 물었다. 무착은 또 다시 말문이 막혀 동자를 보고 말하였다.  
"이 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합니까?"

"반야사라고 합니다."  
동자가 말하며 가리키는 곳을 보니, 웅장했던 절은 어느새 간 곳이 없었다. 짝짝 놀라 돌아보니 동자도 사라져 버리고 보이지 않았다. 사람과 절이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진 허공에서 계승 한 구절이 들려왔다.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 마디 미묘한 향이로라.  
깨끗해 티 없이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문수보살을 직접 뵈고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무착은 수행에 더욱 힘썼다. 그리하여 홍주 관음원에서 양산 해적을 만나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어느 해 겨울이었다. 무착이 동짓날이 되어 팔죽을 쑤고 있는데, 길이 무려무려 나는 죽 속에서 문수보살의 거룩한 모습이 잠엄하게 나타났다. 문수보살이 옛날 오대산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먼저 인사말을 건넸다.  
"무착은 그동안 두고한가?"  
그러자 무착스님은 갑자기 팔죽을 쑤던 주걱을 들어 문수보살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문수보살은 깜짝 놀라서 말했다.  
"이보게 무착, 내가 바로 자네가 그러도 만나고 싶어 하던 문수라네 문수."  
무착스님이 이 말을 받아서 대꾸하였다.  
"문수는 문수고, 무착은 무착이다. 문수가 아니라 석가나 미륵이 나타날지라도 내 주걱 맛을 보여주겠다."  
"쓴 오이는 뿌리까지 쓰고 단 참외는 꼭지까지 달도다. 내 삼대업을 수행해 오는 동안에 오늘 처음 팔시를 받아 보는구나."  
문수보살은 이 말을 남기고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문수보살을 친히 뵈려고 오대산 금강굴에서 삼년동안이나 기도하며 문수보살을 모셨던 무착이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문수보살이 몸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호통을 하며 주객으로 얼굴을 후려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리를 체득한 고승의 걸림 없는 행동이 아닐까?

(법일)



한보살의 아름다운 세상

음식은 몸을 지탱하는 약이다



한 주 영 (불교여성개발 연구과장)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은 의식주(衣食住)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먹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듯합니다. 음식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식욕을 채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불가(佛家)에서는 음식은 몸을 지탱하는 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건강과 장수에 대한 바람이야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가지런하지만 지금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의 식생활에 대해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먹거리 문화는

건강한 생활과 밀접한 연관

몸에 좋은 음식은 첫째 제철음식과 자기 고장에서 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말도 이러한 뜻과 상통하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농사 지어서 먹었으므로, 제철이 아닌 것이나 자기 고장에서 나지 않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절과 관계없이 사철 싱싱한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으며, 다른 지방은 물론이고 멀리 외국의 농산물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점이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리과정을 생각하고 바로 익히거나 데워서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식품도 많습니다. 요즘 대형할인매장이 늘어나고 냉장고가 대형화되는 것도 인스턴트식품의 사용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인스턴트식품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인스턴트식품이 몸에 좋지 않은 까닭은 오래 보관하기 위해 방부제와 같은 화학물질이 첨가된다거나 조리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고 화학조미료가 사용되면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들에 함유된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기준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용기준치를 믿을 수 없는 것은 개인의 식습관에 따라 특정물질이 과다섭취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이들 화학물질은 체내에 한번 들어오면 배설되지 않고 축적된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해양학 음식문화가 패스트푸드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패스트푸드점이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이런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그러나 이들 음식은 재료가 분사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앞서 말한 제철에 자기 고장에서 나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리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1차 가공된 재료를 쓰기 때문에 인스턴트음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조리상의 위생상태도 종종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이런 음식문화가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전통적인 우리 음식들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간장이나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이 몸에 좋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김치도 이제 세계인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 김치나 아체를 전혀 먹지 않는 아이들이 늘고 있으며 인스턴트식품이나 패스트푸드에 입맛이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맛벌이를 하는 경우 가사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기에 인스턴트식품이 편리하다는 하지만, 조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먹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즉, 먹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를 인식하고 음식을 만들고 먹는 일에 좀더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밥이 보약이 되고, 음식이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는만큼 보이고 느끼다

사경의 공덕

사경을 하면 다음과 같은 공덕이 있다.  
첫째는 신란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안정된다. 사경은 정신이 통일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무아(無我)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훌륭한 사경이 이루어진다.  
둘째는 심신(心身)이 정화된다. 사경하는 방법에는 글자 한 자를 쓰고 한 번 절하는 일자일배(一字一拜)의 사경법이 있으며, 글자 한 자를 쓰고 세 번 절하는 일자삼배(一字三拜)의 사경법이 있고, 한 줄을 쓴 다음 삼배를 올리는 일행삼배(一行三拜)의 사경법이 있다. 그만큼 정성을 기울여 사경한다는 뜻이다.  
셋째는 번뇌를 벗어나서 두뇌가 명석해진다. 사경은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조용해 정좌하고 호흡을 가다듬어 정신을 집중하여 사경에 임하게 된다. 사경하는 동안 청정한 몸과

마음이 되어 부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되면 지혜의 빛이 발하게 된다.  
넷째는 경전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 경전은 눈으로 경전을 읽는 것이지만, 사경은 눈으로 경전을 읽고 그것을 직접 손으로 쓰는 것이기에 글자 한자 한자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되새겨 보게 된다.  
다섯째는 일상생활에 있어 즐거움이 증진하여 가정이 화목해진다. 일반적으로 사경은 어떤 일정한 시간과 기간을 정해 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행하게 된다. 이때 정신을 집중하여 사경을 행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정화됨은 물론 몸과 마음의 안락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안락과 행복감은 다시 이웃의 존재에 대한 자비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생활이 기쁨으로 증진하게 된다.

만다라의 모습처럼 재미년 용맹정진 하겠습니다.

정각사

주교: 정사. 경 원  
정사. 수 현  
전수. 정법수  
전수. 자심관  
전수. 유가해  
☎ (051)552-7901

덕화사

주교: 정사. 대 원  
전수. 정인화  
☎ (051)332-8903

관음사

주교: 전수. 정정심  
☎ (051)896-1578

단향사

주교: 전수. 자선화  
☎ (055)644-5375

밀행사

주교: 정사. 지 공  
전수. 지희심  
☎ (055)354-3387

법성사

주교: 정사. 하 정  
전수. 시각화  
☎ (051)468-7164

성화사

주교: 정사. 법 공  
전수. 공덕성  
☎ (051)254-5134

실보사

주교: 정사. 해 압  
전수. 최상관  
☎ (052)244-7760

운천사

주교: 정사. 무 공  
☎ (055)223-2021

일상사

주교: 정사. 지 공  
☎ (055)352-8132

자석사

주교: 전수. 해안정  
☎ (051)752-1892

화음사

주교: 정사. 법 정  
전수. 법지원  
☎ (055)755-4697

삼밀사

주교: 정사. 의 강  
☎ (051)416-9835

부산 · 경남교구 일동

총지논단

심인진리 (心印眞理) ③

본 글은 종조 원정 성사께서 서적 간행을 위해 친히 쓰셨던 원고의 일부입니다. 원정 성사께서 창종의 뜻을 구국도생(救國度生)에 두셨던 만큼 구구절절 일체중생제도의 대비원(大悲願)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한국밀교의 중흥을 창종정신으로 삼았던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정통밀교종단의 교상과 사상의 체계와 정립에 전념하셨습니다.

특히, 한때 진각종단의 총인직에 계셨을 때는 모든 교리체계의 교전편찬을 손수 완성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면면은 원정 대성사의 유고(遺稿)에서 엿보게 됩니다. '심인진리' '진각' 등의 언급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총지종과 진각종의 교전을 아우르고 있는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에서 대성사의 숨결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편집자주>

그러나 부인이 남편의 종교를 따라서 진실하게 믿는 이는 보기 어려운 것이다. 진리는 아내의 주권으로 세워주는 데서 현실은 남편에게 주권이 돌아오게 되는 상대적 원리가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까닭이다.

만약 남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의 주권도 스스로 없어지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를 믿지 않는 가정은 일원주의 속에서 부부간에도 한 편의 주권이 없이 살아가기 쉬우니라.

부모는 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도울 이 없으며 허랑한 자식은 그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이 중생의 마음 가운데 본각(本覺), 곧 진각(眞覺)이 없고 또 천지신명을 진각 보다 더 숭배하여서 진각, 곧 심인을 깨치지 못하는 중생은 하늘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땅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람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신명의 도움도 받지 못하느니라.

대저 자식이 진실하여야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사람이 깨어서 심인이 서 있어야 천지신명과 만물이 능히 도우게 되므로 화엄 성중이 진각을 숭배하고 옹호하는 실상(實相)은 삼보를 숭상하는 불교에서는 상으로 나타내어 보인 것을 알아야 한다.

부모는 자식을 절대 사랑하는 것이지만 자식이 악해져서 바르지 못할 때는 도우지 못하게 된다. 믿음이 깨끗하게 되면 진각이 나의 마음 안에 계시어서 능히 나를 도우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진각은 나의 더러운 마음 안에 있을 수 없으니 나를 도우지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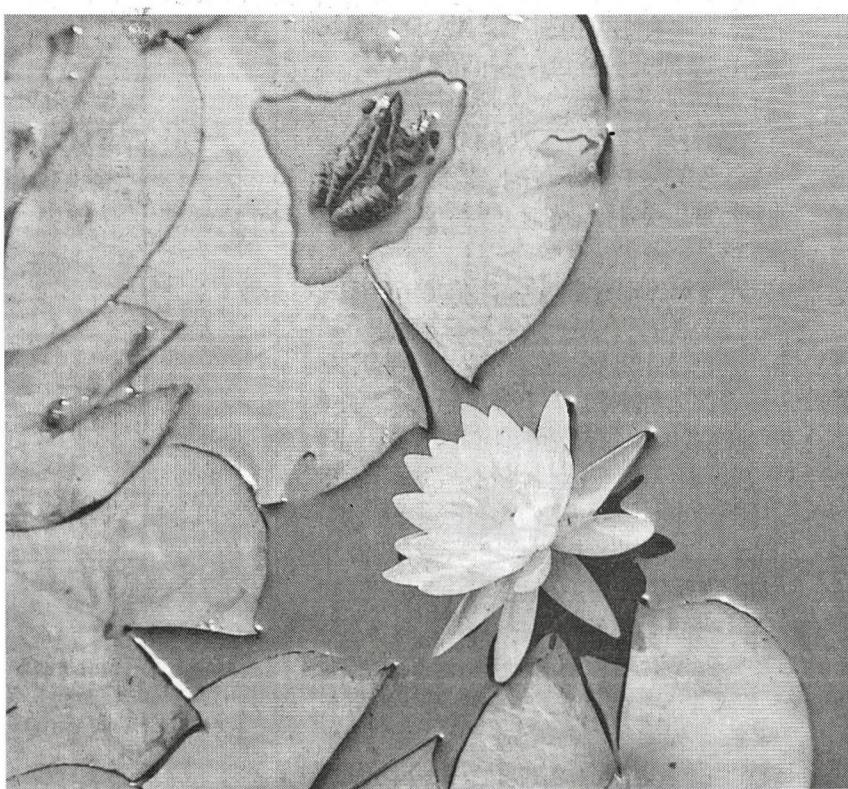
행실이 깨끗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덕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 가까워져서 교제하게 되어 능히 나를 도우고 행실이 더러우면 착한 사람들은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 까닭으로 천하게 될 것이요.

몸이 깨끗하고 행세하면 일체 경애(敬愛)가 나와 같이 있어서 능히 나를 도우

고 몸이 추하고 냄새가 나면 경멸이 나에게 쏟아져서 일체신군이 있을 수 없어서 나를 도우지 못하니 아귀와 같이 생활을 하게 될 것이요.

집이 깨끗하면 무량한 보배를 가진 광대한 땅은 나의 집 안에 계시어서 능히 나를 도우고 집이 불결하여 좌정할 틈도 없이 되면 나를 도우지 못할 것이요.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깨끗하면 하늘과 땅과 신명이 다 나를 숭배하고 도우게 되며 깨치지 못하면 내가 그들을 숭배하고 도움을 받게 되는 것만 다를 뿐 아니라 자타가 다르고 대소가 다르고 주객이 다르고 선후분말이 달라서 그 중에 성품 깨끗한 종파(宗派)가 우리의 고유 사상에 부합함이라.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깨끗하면 일체가 다 깨끗하게 되는 법이라.

심인(心印)은 나에게 있는 진각(眞覺)의 이름이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 천지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무량겁



로서 중도적인 소법(小法)이요 정치와 종교는 상대(相對)로서 공도적(公道的)인 대법(大法)이라.

과거는 중도적(中道的) 일원(一元)으로 세워졌던 것이요, 현재는 공도적(公道的) 이원(二元)으로 나누어지는 것만 다를 뿐이므로 도(道)가 없어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가 행정, 사법(司法), 입법(立法)과 같이 삼권으로 분립(分立)하고 또 다시 각각 부분을 나누어서 치국(治國)하는 것과 같이 종교계도 일원 이원 다원 종교로 분립(分立)하고 또다시 화엄치리(化業治理)와 사업(事業) 부분으로 나누어 교화(教化)하는 데 진(眞)과 공(空)이 서로 이기지도 않으며 서로 지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발전하여서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

서양은 여러 종교가 종파로 많이 나누어졌으므로 민주주의는 서양에서 먼저 발달하였고 동양은 전제와 해국주의 하에 종교도 발전 못하고 종파도 나누지 못해서 봉건사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발전하지 못하였다. 종교와 종파가 다양해지면 세계나 국가가 모두 믿을 수 있고 하나로 되면 믿음이 미신과 같이 되어서 하한한 데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세계나 국가 전체에 백의 하나 둘도 믿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하나로만 나아가는 것은 전제시대 불교와 같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자유세계 민족은 지혜가 다 밝아서 있으므로 영원한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 자유로 종교를 믿게 되어 있는 까닭이다.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기를 서원하는 법 계진각은 탐진치에 얽매인 사람들의 마음과 다르므로, 공도(公道)를 세우는 우리나라에서 늙은 나무와 같이 되어 있는 자유불교를 종파로 나누어지게 하는 급선무 사명을 우리 불교계에 부여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心印은 나의 眞覺이요 眞理는 변함이 없다

중에 다 변하고 없어지는 것이되 오직 심인은 천지가 나기 전이나 천지가 마친 뒤에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 잠시간에 변하고 없어지는 사람과 귀신에게는 속아도 절대 변함이 없는 심인은 의심을 품고 믿는 데 억만겁이라도 속임이 없느니라.

선악을 막론하고 어두운 어떠한 곳에 서라도 자기의 심인을 모르게 할 수 없느니라. 심인은 진각께서 옳다고 내중한 마음이니 심인을 깨쳐서 해인(海印)을 믿고 스승의 말을 믿고 인지에서 과반하는 것을 꼭 믿고 행하는 데 서원대로 되느니라.

남녀 양성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결코 차별은 없는 것이요. 인간으로서

평등한 것이다. 그러나 선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는 차별이 있는 것이다.

남(男)은 천성적(天性)이요 여(女)는 인성적(人性)이며 남은 수성적(水性)이요 여는 화성적(火性)이며 남은 정신적(精神)이요 여는 물질적(物質)이며 남은 동적(動)이요 여는 정적(靜)이며 남은 밖에서 활동적(活動)으로 되어 있고 여는 내성에서 내성적으로 되어 있으며 남은 물질을 생산하는 동력을 가졌으며 여는 자손을 양육하는 자비를 가졌으며 남은 거칠고 큰 일을 하게 되어 있으며 여는 작고 가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 이것은 선천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차별이라.

그러므로 남(男)에는 남성에 부합한 성능(性能)을 가진 진면(眞面)이 필요하

고 여(女)에는 여성에 부합한 성능(性能)을 가진 진면(眞面)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중생의 식견으로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는 진각께서는 다 알아서 환영하고 계시니라.

이원진리(二元眞理) ①

민주정치가 아니면 종교가 자유롭게 될 수 없고 자유종교가 발전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가 보장될 수 없다. 그러나 종교가 정치에 아부하지도 않고 정치가 종교를 지배하지도 않는다.

종교는 법치국가의 이면에 진리적 정치가 되는 것이므로 이원(二元)이 되느니라. 도덕과 정치는 계(係)와 용(用)으로

아내는 현실에서 남편을 내조하면서도 종교적 진리의 주권은 가져야 한다. 즉 종교는 곧 아내가 주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요, 현실은 남편이 그대로 주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한 집에서 살아가는 부부간에 종교 사상이 나누어져서는 쌍방에 서로 다른 종교로써 투쟁하다가 그 가정은 결국 파괴되고 마는 까닭으로 남편은 아내의 주권인 종교를 따라 가는 것이 법계의 진리라. 가정평화를 위해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의 주권은 부인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내가 천주교를 믿다가 장로교로 신앙을 옮기게 된다면 남편도 따라 장로교로 옮기게 되고 아내가 예수교를 믿다가 불교로 옮기게 된다면 남편도 따라 불교로 옮기게 되는 것은 많다고만 할뿐 아니라 대개가 그러하니라.

조선화원장의 총지 등의 보감

겨울철 한방건강관리



“겨울철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되 반드시 해가 뜬 뒤에 일어나야 한다. 마음에 숨겨두는 일이 있거나 남에게 보이지 못할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며 추운 데가 아니라 따스한 방에 있으면서 살갓으로 따이 흘러나와 갑자기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한다. 이것이 겨울철에 순응하는 것이며 간직하는 기운을 돕는 방법이다. 이것을 거역하면 콩팥을 상하여 봄에 가서 위 결벽이 생기고 봄에 나는 기운을 돕는 힘이 적어진다.”

- 동의보감 중에서-

겨울철에 다발하는 질환으로 중풍을 비롯해 각종 뇌졸중 및 호흡기, 질환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풍은 계절적 특성상 혈관이 수축되고 기혈의 순환이 느려지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발병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 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겨울철 복병 중 하나로 일명 중풍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뇌졸중은 건강하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저승길로 보내고 전신·반신마비 등의 후유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뇌졸중은 찬바람에 노출되어 뇌혈관이 수축돼 터지거나 막혀서 뇌에 부분적으로 기능 이상이 생기는 병으로 특히 50세 이상의 장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며, 최근에는

식생활이 저양화되고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30, 40대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모자를 착용하는 등 찬 공기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가 건조해지고 탁해져 건선이나 가려움증, 건성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이 다발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너무 춥다고 무조건 실내 공기를 밀폐시키기보다는 가끔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계절과 달리 겨울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 찬 기운에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따이 날 정도로 너무 덥게 지내지 않도록 하여 양기가 몸 밖으로 발산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양기가 발산되면 겨울은 물론이고 봄이나 여름에도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겨울은 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며, 양기를 함

양하고 비축하는 계절입니다.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해 첫째, 너무 춥게 옷을 입거나 너무 덥게 옷을 많이 입지 않도록 합니다. 둘째, 실내온도를 너무 높이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셋째,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음식은 양기를 보충할 수 있는 것으로 온열성 음식이 좋습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과 고른 영양섭취, 적당한 휴식과 함께 적절한 운동을 하는 등 추위에 적극적으로 맞설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약보다도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겨울철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연말 연시 보내십시오.

여성美 한의원 원장 ☎(02)545-0072

만다라의 모습처럼 그리워집니다. 진언의 세계에는 모든것이 있습니다.

**수인사**  
주교 : 전수, 지선행  
☎ (054)247-7613

**제석사**  
주교 : 전수, 법상인  
☎ (053)743-9812

**전화사**  
주교 : 전수, 정원심  
☎ (054)761-2466

**개천사**  
주교 : 정사, 지광  
전수, 수심정  
☎ (053)425-7910

**국광사**  
주교 : 정사, 우승  
전수, 묘섭계  
☎ (054)772-8776

**단음사**  
주교 : 전수, 일신행  
☎ (054)333-0526

**선립사**  
주교 : 정사, 보원  
전수, 심지장  
☎ (054)261-0310

**수계사**  
주교 : 전수, 안주화  
☎ (054)745-5207

**승천사**  
주교 : 전수, 불명각  
☎ (054)746-7434

**진언공덕  
가득하시길**  
대구·경북교구 신정회

대구·경북교구 일동

생활속의 밀교

적극적인 십선회향(十善廻向)이 참불공 참수행이다

불교에서 실천적 윤리로 강조되는 것이 십업설(十業說)이다. 십업설은 세속적인 사회윤리의 대표적인 불교교설이며 인과율(因果律)에 입각한 실천윤리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업(業)은 정신작용의 하나인 사(思)를 말하는 것으로 바로 중생의 마음작용을 가리킨다. 우리 중생들은 몸과 입과 뜻으로 모든 업을 짓는다. 악업도 짓고 선업도 짓는다. 이 악업의 열거지를 십악업(十惡業)이라 한다.

석존은 무명중생의 무지(無知)를 타파하기 위하여 먼저 악업(惡業)부터 살피셨다. 그래서 절대 악업을 짓지 말라고 강조하셨다. 십악업을 짓지 않으면 바로 십선업이 되기에 석존은 십선업을 따르어 시설(施設)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십선업 넘어 적극적 긍정적 십선회향이 총지종의 정신

중생이 짓는 열가지 악업(惡業)은 죽이는 것(살생), 흠치는 것(투도), 사되고 음란한 행위(사음), 거짓말(망어), 두 말하는 것(양설), 험악한 말(악구), 꾸미는 말(기어), 집착으로 일으키는 욕탐(탐욕), 성내는 것(진에), 사된 생각(사견)이다.

이러한 십악(十惡)에 반대되는 말이 십선(十善)이다. 십악업의 반대개념이 십선업이다. 십선은 십선도(十善道)·십선계(十善戒)라고 하여 몸과 입과 뜻으로 열가지의 악을 범치 않는 제계(制戒)임을 나타내고 있다. 보통 이 십선업은 십악업에 부정적접사 '불(不)'자를 붙여 표현된다. 살생(殺生)은 불살생(不殺生)으로, 투도(偷盜)가 불투도(不偷盜)로, 사음(邪淫)은 불사음(不邪淫)으로, 망어(妄語)가 불망어(不妄語)로, 양설(兩舌)은 불양설(不兩舌)로, 악구(惡口)가 불악구(不惡口)로, 기어(綺語)는 불기어(不綺

語)로, 탐욕(貪慾)이 불탐욕(不貪慾)으로, 진에(瞋?)는 불진에(不瞋?)로, 사견(邪見)이 불사견(不邪見)으로 전화(轉化)하는 것이 불십악(不十惡)의 십선업(十善業)인 것이다. 그러나 이 십선업(十善業)은 단순히 '아니 불(不)'자를 머릿글자에 붙인 것에 불과하다. (물론 행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와 달리 십선업을 더욱 적극적인 개념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밀교종단인 우리 총지종의 '십선회향(十善廻向)'이다. 부정적접사를 붙인 십선업에 비해 더욱 적극적이고 광대한 십선업이다. 소극적인 십선이 아니다. 십악에 '아니 불'자를 붙인 십선과는 달리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긍정적 심선행(十善行)인 것이다. '십선(十善)'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 '회향(廻向)'까지 아우르고 있는 것이다.

'살생(殺生)의 중죄(重罪)를 지심으로 참회하여 금일에는 반드시 자비(慈悲)의 공덕을 이루겠다'는 적극적 십선업도(十善業道)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살생(殺生)은 방생(放生)으로, 투도(偷盜)는 남을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된 음행은 정조를 굳게 지켜 스스로 깨끗하게 닦아 나가는 것으로, 망어(妄語)는 오로지 정어(正語)로, 꾸미는 말은 옳은 말로 공덕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양설(兩舌)은 화합의 공덕으로, 악구(惡口)는 적극적 애어(愛語)로, 탐심(貪心)은 더 큰 보시(布施)로, 진심(瞋心)은 대한희심(大歡喜心)으로, 치심(癡心)은 지혜의 마음으로 승화시켜 공덕을 성취해나가겠다는 적극적 수행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루 하루 적극적 십선업(十善業)을 지어가는 것. 그것이 참다운 불공이요 참수행이라 할 것이다.

(법정원 법경)

<3면에 이어서>

5) 만다라는 우리 종단의 불사위계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진호국가불사의 만다라관)

진호국가불사 의례에서 '만다라관'은 그 자체가 바로 태장계 금강계만다라의 봉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의 의례 가운데 만다라에 대한 교상과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진호국가불사의위계'의 만다라관입니다. 즉 만다라는 진호국가불사와 함께 이미 우리 종단의 중심적인 수행법으로 존재해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만다라관'은 바로 태장계와 금강계만다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다라관'에서 중앙의 비로자나불, 동방 아축불, 남방의 보생불, 서방 아미타불, 북방의 불공성취불과 사방의 사보살은 바로 금강계만다라의 봉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하면 이들 오불과 사보살은 바로 금강계만다라에 계시는 오불(五佛)과 사보살(四菩薩)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방에서 호위하고 있는 사대명왕과 사대천왕은 바로 태장계만다라의 봉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하면, 이 사대명왕과 사대천왕은 바로 태장계만다라에 계시는 명왕과 천왕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다라관'은 바로 양부만다라의 관상(觀想)이요, 만다라의 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만다라관'은 바로 양부만다라가 종단의 의례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조님께서는 이미 종단의 교의와 사상, 의례로서 양부만다라를 채택하셨던 것입니다.

**2. 결론**

창종 당시부터 중심적 교의로 삼아 왔던 만다라를 봉안함으로써 총지종은 명실상부한 밀교종단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교의적(敎義的)으로 사만다라를 교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상적(事相的)으로는 '진호국가불사'의 '만다라관'(曼荼羅觀)에서 양부만다라를 채택하고 있고, 또, 본존을 육자대명왕진언이라는 문자다라니로 모시고 있으니, 이미 직간접적으로 '만다라'를 모셔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부만다라의 봉안은 바로 총지종의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의 확립과 체계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총지종은 밀교 양부대경인 『대일경』과 『금강정경』에 근거하여 양부(兩部) 도회(圖繪)의 현도만다라(現圖曼荼羅)를 봉안하였으니, 한국정통밀교의 중흥과 윤원구족(輪圓具足)의 대도(大道)를 시방세계에 펼쳐 나가야 할 사명감에서 있습니다.

월정대성사와함께하는 Visual 밀교 ~반야심경편제14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출발, 끝없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 황 사

주교 : 전수. 법수원

☎ (062)676-0744

혜 정 사

주교 : 전수. 수증원

☎ (043)256-3813

만 보 사

주교 : 정사. 법 성  
전수. 정일혜

☎ (042)255-7919

백 월 사

주교 : 전수. 사흥화

☎ (042)527-5470

흥 국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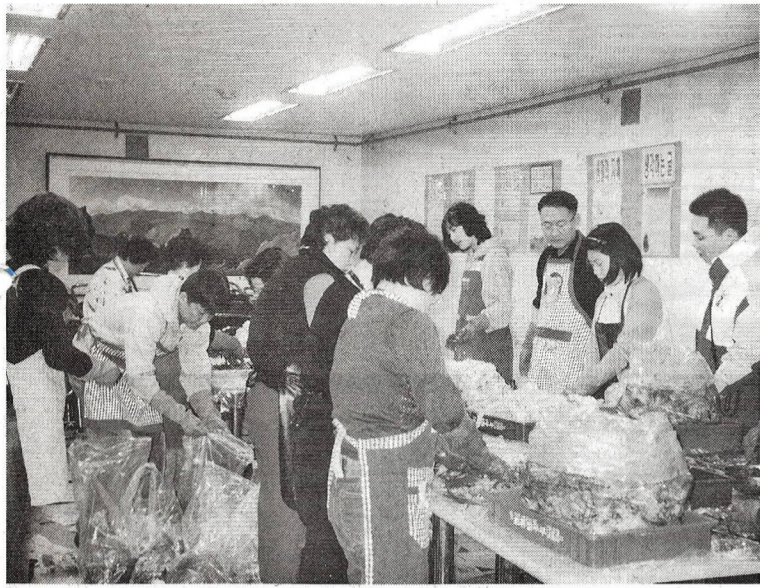
주교 : 전수. 밀공정

☎ (063)252-4359

총청 · 전라교구 일동

#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의 겨울나기

## 따뜻한 사람내음 노인에게 공양을



중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관장 조영표) 겨울나기 한창이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는 지난 12월 6일과 7일 양일에

걸쳐 '따뜻한 겨울나기2002' 행사를 통해 겨울을 맞이하여 복지센터 이용자에게 감동과 내음을 전달하였으며 12월 27일에는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가족 송년잔치를 하였다. 예서는 어르신과 가족, 봉사자와 직원 등 주간보호센터 가족이 함께 모여 2002년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계획하였습니다. 점심식사와 민요단원의 공연, 가족 장기자랑 순으로 이어진 이별행사에서 특히 가족 장기자랑은 참가자 모두에게 많은 갈채를 받았다.

또한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의 온정의 손길이 닿았다. 월마트, (주)CJ 사회공헌팀에서 생활용품과 식품을 후원하였으며 삼성SDS 독거노인 한분당 10kg 사랑의 쌀 후

원을 하였다. 특히 (주)내소날스타치의 봉사자들이 감동을 담고고 독

### 진각종 회당 대종사 탄생 100주년 회향범회 진각종 소의 경론 전산 CD 봉정식

진각종은 회당 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불법은 체요, 세간법은 그림자'라 공언을 지난 12월 9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 대극장에서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국악교성곡으로 꾸며진 이날 공연은 4부 14장으로 이루어진 교성곡은 사실적인 가사와 섬세한 음율과 대규모 합창단이 어울려 회당 대종사의 구도역정을 음악으로 승화시켰다.

거노인들에게 직접 배달까지 하는 등 뜻깊은 행사가 이어졌다. 한편 자원봉사자 감사잔치와 주간보호센터 하반기 가족간담회를 통해 올해의 사업을 평가하고 올해의 경력을 공유하고 레크리에이션 강사의 교육을 통해 2003년 사업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 사업도 소홀하지 않았다.

한편 창자 국악교성곡 공연에 앞서 회당 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진각종 소의 경론 전산 CD와 회당 논설집 봉정식을 봉행했다.

봉정식은 해일 총인을 증명으로 행정 교육원장과 종립 고려대장경연구소장이 소의경론 전산 CD와 회당논설집을 이운하고, 효암 통리원장의 가지작법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로써 진각종은 회당대종사 100주년 탄생기념 기념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노무현 후보 당선 노무현 48.9%, 2.3% 차이로 당선

제16대 대통령에 민주당 노무현(盧武鉉)후보가 당선됐다. 盧당선자는 19일 전국 1만3천4백71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대선에서 12,014,277표(48.9%)를 얻어 당선됐다. 盧당선자는 승리를 확정지은 뒤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의 당선을 위해 뛰어주지 않으셨거나 반대하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면

서 "앞으로 저를 지지한 분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저를 반대하신 분들까지 포함한 모든 분들의 대통령으로, 심부름꾼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불교총지중 범공 통리원장 20일 발표한 축하메세지 통해 '초심이 변치 않는 지도자로 영원히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길 기원한다'는 축하 당부를 하였다.

#### 당선 축하메세지

#### 16대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21세기를 맞이하여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 제 16대 대통령 노무현 당선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대통령 당선까지 여러 어려운 역경과 시련이 있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극복하여 결국 성취하신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가슴마다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반쪽과 질서의 늪을 깨고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대통령,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과 대업을 이루는 대통령, 자주적인 국가의 힘을 갖추는 대통령, 우리 사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대통령이라는 씨앗이었습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초발심이 변하지 않으면 정각(깨달음)을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초심이 변치 않는 지도자로 영원히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길 기원합니다.

총기 31년 12월 20일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범공 합장

### 불교계여중생 사망 미군 규탄 불교대책위 구성 108배 정진에서 단식투쟁까지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이 무죄로 판결되자 국민 사이에 미국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들릴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 14일 10만여명이 서울 시청 앞에서 모여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를 벌이는 가 하면 전국적으로 추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 시위는 어느 특정종의 주도로 열리는 시위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가족들과 중고등학교 그리고 종교와 남녀노소가 참여하는 전 국민적 시위의 양상을 띠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재가연대를 비롯한 불교단체는 지난 5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미군 참회와 SOFA개정을 위한 범 불교도 108배 정진'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부시 미국대통령의 직접참회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자 구속처벌 △불평등한 SOFA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또 불교대책위원회회를 구성하고 실천행동을 벌여 나가기로 결의했다. 불교대책위는



이에 따라 다음날인 6일부터 13일까지 미 대사관 옆 광화문 열린 시민마당에서 108배 정진을 진행하고 9일부터 불교인권위 진관스님 불교환경연대 수경스님 실천승가회 사무처장 종호스님등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불교계의 여중생에 대한 추모의 행렬이 이어질것으로 예상된다.

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군법당과 결연을 맺은 사찰은 225곳, 2곳 이상의 군법당을 지원하는 사찰은 28곳 신병교육대를 지원하는 사찰은 12곳으로 드러났다.

또 390개소의 군법당 가운데 250여 곳은 사찰이나 신행단체, 개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만 여타의 군법당은 어떠한 외부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 △전방방선교대와 주요 교육부대 군법당 지원미흡 △함정주, 다과, 책자지원부족 △결연사찰의 확대 △범문지원필요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불교총지중도 매년 지원한 칠성부대 전방지원사업과 51사단 지원사업이 지난 12대(해암 통리원장) 집행부에서 단절된 사례가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 군법당 140여곳 자체 운영 군불교위원회, 군포교 현황발표

전국의 군법당 390개소중 140여곳이 종단이나 외부의 지원없이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군불교 위원회는 최근 1월부터 11월까지 군법당과의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해온 결과를 담은 육·해·공군 군사할 자매결연 현

### 불교인 윤리의식 낮게 나타나 참여불교 '불교인의 생활윤리 및 교단운영에 관한 인식조사 보고서' 밝혀

불교계를 대표하는 지도급 신자들은 불교 교단의 윤리의식이 천주교는 물론 개신교보다 낮고 공직사회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자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불교의 윤리수준이 개신교나 공직사회보다는 깨끗할 것이라는 불교계 내부 정서와 '믿음'을 뒤엎는 '자조적인' 평가로, 교계는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격월간지 '참여불교'가 동국대불교대학원 총동문회 회원과 불교대학 졸업자·교포사, 조계종 중앙신도회 대의원등 재가불자들이 가운데 30세이상 열성적인 지도그룹 325명을 상대로 지난 8.9월 2달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 계율의 현대적 해석 필요성 제기

불교교단 운영의 윤리수준을 묻는 질문에, 천주교와 비교해 윤리수준이 '높다'는 응답자는 6%, '비슷하다'는 22%에 그친 반면, '낮다'는 응답자는 무려 69.8%나 됐다. 개신교와 비교해 '낮다'는 응답자는 42%로 '높다'(20.7%)의 두배나 됐고, '비슷하다'는 34.2%였다. 공직사회와 비교해 불교의 윤리의식이 '높다'(29.7%), '낮다'(24.8%)는 응답이 엇비슷하고, '비슷하다'는 45.5%였다.

신자들은 이와함께 불교의 5가지 계율(五戒) 준수와 관련, 출가승려들의 육식문제 등에 대해 점차 관용적 입장을 보이고, 재가자들도 육식문제 등에 대해 실천가능한 윤리지침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 현실적 반응을 보였다.

살생(殺生)금지 조항과 직결된 승려의 육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6.4%가 '일상적으로 먹지만 양면 관했다'고 대답했다.

신자 자신의 경우에도 '일상적으로 먹지만 양면 관했다'(38.3%), '산 짐승을 잡거나 잡도록 주문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할 수 있다'(31.2%) 등 조건부 허용 응답비율이 69.5%로 나타나 육식이 일상화되는 식생활을 점차 수용하는 경향으로 조사됐다.

신자들 스스로 금주 등 계율을 잘 지키느냐를 묻는 질문에 '지키지 않는다'가 70.8%, 긍정적인 답변은 28.6%에 불과했다.

계율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신자들은 '사회생활로 계율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45.1%), '계율을 지킬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42.8%)등으로 응답, 5계의 근본주의적 적용보다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현실적인 실천지침을 정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됐다.

참여불교 관계자는 "교단 운영자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교단공직자윤리위원회등 자정기능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동국학원 이사장 정대스님 선출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각축 예상

학교법인 동국학원은 12월 23일 동대 회의실에서 제188회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20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사회에서 정대스님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것은 2003년 1월 24일부터 임기가 발표된다. 신임이사장 정대스님은 "신임 동국대 총장을 모시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사장을 맡게 됐다"며 "모든 일은 이사들과 상의해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사회는 정대스님을 동국학원 이사로 재임명했으며, 12월 23일부터 1월 23일까지의 임기인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눕시다

2002. 11. 12 부터 12. 13

개천사	강길자	10,000	밀인사	김덕자	20,000	실지사	관음행	60,000	통리원	인 선	10,000
개천사	대원화	50,000	밀인사	배태임	5,000	실지사	박미선	5,000	해정사	심미자	5,000
개천사	배윤택	20,000	밀인사	정영자	20,000	실지사	성대성	3,000	해정사	조숙자	5,000
개천사	삼정행	10,000	백월사	사홍화	100,000	실지사	송무생	5,000	흥국사	강문석	10,000
개천사	수 성	10,000	법황사	장복순	30,000	실지사	일월정	5,000	흥국사	강한빛	10,000
개천사	장진식	5,000	벽룡사	양재욱	5,000	실지사	장근도	10,000	강덕심	5,000	
개천사	지 광	10,000	벽룡사	양정민	5,000	실지사	정란채	5,000	무영씨	5,000	
개천사	한영란	500,000	벽룡사	이종호	20,000	실지사	최영혜	5,000	지선주	5,000	
관성사	이혜원	5,000	성화사	김은혜	10,000	정각사	김정연	10,000	만보사	배정임	10,000
관성사	해 정	10,000	성화사	법 공	50,000	정각사	김정화	100,000	정각사	박복월	5,000
기로원	대 관	10,000	수인사	김봉기	10,000	정각사	정희연	5,000	함정후	5,000	
기로원	대자행	10,000	수인사	김 진	10,000	정각사	최분선	10,000			
기로원	법장화	10,000	수인사	이순자	5,000	지인사	김기백	10,000			
기로원	상지화	10,000	수인사	한애숙	20,000	총지사	이인정	2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의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7668610  
- 우리은행: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 사진으로 보는 2002년



## 각 분과위 활성화 중단 발전 새 기틀 마련...

### 外的, 內的 대작불사 토대마련

#### ▶ 만다라 대법회

창종 30주년 기념 금강계 태장계 만다라 봉안 대법회가 지난 12월 12일 오후 2시 총지종 본산 총지사(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에서 약 1천명의 동참으로 성황리에 봉행하였다.

특히 이번 법회에서는 일반적 법회와 다르게 불보살을 청하는 보소청진언, 청하여 모신 불보살님께 자리를 권하는 환좌진언,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보례진언, 삼보에 귀의하는 귀의삼보진언, 만다라 봉안 오물 진언으로 전통밀교의식 진언형식의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또 부처님께 여섯가지 공양물은 올리는 육법공양은 정중하면서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이번에 봉안된 양부 만다라는 밀교경전인 대일경과 금강정경에 근거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총지종단은 5년간 심혈을 기울여 공개된 불화다. 총지종의 연구기관 법장원의 연구진 지도하에 밀교수행의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티벳 현지의 승려(SHAILA LAMA, KUNSANG LAMA 등 12명 티벳승 참여)들이 직접 제작하여 조성한 불화로써 가로 세로 2.6미터의 정사각형이며 태장계에는 409존, 금강계에는 1461존의 불보살님과 명왕, 천왕 등이 망라되어 성보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 수해의 온정

8월31일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루사'는 이를 동안 강원도와 충청, 영남지역을 강타했다.

초속 56.7m의 강풍을 동반했던 루사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하루 870.5mm의 장대비를 강원도를 중심으로 쏟아부었다.

전례없는 수해로 246명이 사망·실종됐으며 5조 10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천재에도 사람의 온정은 태풍 루사보다 더 뜨겁게 이어졌다.

불교총지종은 서울 경인교구를 비롯하여 각 교구별 사원별로 수재민 돌봄에 나서며 특히 서울 경인교구는 수해민들을 위한 물품을 강원도 정선에 직접 전달하였으며, 총지사 신정회는 별도로 현물기자를 정성스럽게 새탁하고 포장하여 직접 강원도에 전달하는 등 보살행이 이어졌다.



다사다난 했던  
임오년의 해가 저물고  
계미년 새해가 밝았다. 임오년은  
중단의 안팎으로 격동의 한해로 기억될  
것이다. 한일 월드컵,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태풍루사로 인한 수해, 16대 대통령 선거 등  
급격한 국가적 행사를 원만히 성취하였으며  
불교 총지종은 창종 30년 만에 국내 최초로  
태장계 금강계 만다라 봉안 대법회와 13대 법공  
통리원장의 출범 그리고 아쉬움 속에서 원로  
스승님들의 퇴임을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계미년 새해가 밝았다. 청년의 패기와 장년의  
노숙함으로 중단도약의 일대전기를 만드는  
한해가 될 것이다. 溫故知新的의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자.  
(편집자주)



#### ▲ 기로스승 퇴임

임오년 1월17일 우리는 아쉬움과 눈물속에 기로스승 다섯분의 퇴임식을 지켜보았다. 오늘날 불교총지종이 있기까지 오로지 수행과 교화의 일선에서 평생을 중생들과 함께하신 스승님들의 모습은 거룩하고 경건하였다.

송하스승님, 원봉스승님, 혜산스승님, 수행월스승님, 주신제스승님들의 주옥같은 진리 가득한 법문을 다시는 듣지 못함이 안타깝기만 하다.

떠남은 또 다른 시작이고 전진행자는 언제 어디서나 처처불공 시사불공으로 깨달음을 위한 공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로스승님들의 퇴임사가 기억에 가득하다.

오늘날 불교총지종이 있기까지 수행과 전법에 모범이 되신 스승님들을 후배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 ◀ 합창단 활동

부처님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 저 이제 발원하오니  
이 원을 들으소서 / 나무아미타불 / 중생의 기원을 들어주소서  
옵마니반배후 /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불교총지종의 행사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법음이 있다. 합창단의 화음은 불교의 가르침인 화합과 자비의 정신이 함축되어 있다.

서로가 서로를 지비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상호존중 속에서 화합의 마음이 노래로 표현되었을 때 부처님 법음이 대중들에게 음성으로 공양되어진다.

행사가 있으면 감초의 역할이 되어주고 대중이 있는 곳이면 아름다운 화음으로 세상을 밝게 빛내준다.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



#### ▲ 13대 통리원장 취임

부산 성취사주교 법공종사가 13대 불교총지종 통리원장에 선출되었다.

통리원장 법공 종사는 취임사에서 승단의 대화합과 대동단결의 제일 원칙 속에 중단행정의 투명성과 전 종도들이 참여 열린 행정, 중현 중법을 준수하고 원칙과 형평성에 맞는 법집행 그리고 인재양성과 승단의 교육과 재교육을 통한 자질향상을 프로그램 마련 등 5개 원칙을 밝혔다. 이로써 12대 통리원장 해암 종사의 사임으로 생긴 중단 행정 공백이 마무리 되었다.

법공 통리원장은 수행과 중법집행 그리고 중단 집행부를 두루 경험하여 중단 내적 외적으로 신망을 받고 있다.



#### ▶ 승단대토론회

11월13일부터 2박3일동안 진행된 중단발전 위한 승단 대토론회의 열기가 아직까지 전해지는 듯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생교화의 일선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모든 문제를 전 승단이 공유하였고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하였다.

특히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중현 중법의 개정에서부터 불사의의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전담간섭위원회(우승 국광사 주교), 교화발전위원회(법정 화음사 주교), 불사법오위원회(해암 심보사 주교), 중현 중법위원회(의강 삼일사 주교), 흥법포교위원회(지공 밀행사 주교), 사회복지위원회(정법계 전수 관성사), 도제양성위원회(정인화 전수 덕화사), 재점자립위원회(시정 법천사 주교), 총괄기획위원회(지성 시법사 주교) 9개 분과위를 구성하였다.



#### ▲ 법항사·흥국사 사원신축

대 비로자나 금강 법계궁이 완공되었다.

광주사 남구 구동 우람하게 우뚝선 법항사는 3층 대리석으로 마감하였으며 전통한옥의 멋이 흠뻑 느낄 수 있도록 세워졌다. 지난 2001년 12월 착공하여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전통과 현대의 조화속에 전통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게 설계된 법항사는 지역에 맞는 건물로 입소문이 나서 지역에 명물로 자리잡을 것 같다. 또한 전주사 완산구에 건립될 흥국사도 2층 대리석 마감에 법항사와 같은 형식의 건물양식을 띠고 있어 주변의 대표적 건물로 선정될 정도로 외관을 자랑한다. 이제 호남지역 진언포교의 전진기지로 굳건하게 자리잡을 토대가 마련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